

# 시도민 명예 걸고 열정·투혼 쏟는다

## 제99회 전국체전 오늘 전북서 개막

광주 종합14위·전남 종합12위 목표  
김국영·정혜림 등 스타들 승전보 기대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일원에서 열린다.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되라 대한민국'이라는 대회구호 아래 육상 등 47개 종목에 전국 17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단 등 총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광주시선수단은 46개 종목 1,326명(선수 979명·임원 35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광주는 이번 체전에서 3만점 이상 득점을 목표(종합 14위)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54개를 획득하며 전국체전 역대 최다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는 올해 충남, 전남, 강원, 충북, 대전과 치열한 중하위권(9~14위) 경

쟁을 펼친다. 광주는 3만148점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쟁 시도가 3만4,000~3만1,200여점대의 특징이 광주는 이번 대회에서 전력이 상승된 육상, 자전거, 체조, 카누 등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2018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육상 김국영, 정혜림, 유도 김성연, 근대5종 전운태, 펜싱 강영미 등의 선수들이 출전, 개인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육상 간판 김국영(광주시청)은 한국신기록 수립과 함께 대회 4연패에 도전한다. 허들 여왕 정혜림(광주시청)과 육상 기대주 모일환(조선대 1년)도 각각 3연패를 준비하고 있다. 세단뛰기 신화를 써가는 김덕현(광주시청)은 7연패에 도전장을 내민다. 광주 수영의 자존심 백수연(광주시

체육회)는 국가대표의 기량을 뽐내며 신기록과 대회 4연패에 도전한다. 스쿼시 여자일반부(광주시체육회)도 대회 4연패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예상돼 3만148점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 치열한 순위 경쟁을 예고했다. 오순근 광주선수단 총감독은 "전국체전에서의 승리는 개인의 영광과 함께 고향과 시민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값진 성과다"며 "타 지역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역시 광주'라는 찬사를 들을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선수상을 보여주겠다"고 출사표를 밝혔다. 전남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47개 종목 163종별에 1,644명(임원 437명, 선수 1,207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종합12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은 3만1,500~3만2,500점대의 득점을 획득해 강원, 광주, 대전과 11~14위권의 치열한 순위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번수발생이 큰 승마, 볼링, 사격, 양궁 등 기록종목과 득점폭이 큰 축구, 야구소프트볼, 럭비, 세팍타크로, 펜싱, 스쿼시 등 단체종목, 씨름, 태권도, 레

슬링 등 투기종목에서 선전시, 32,500점대 이상의 득점 획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전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학교체육 활성화와 행정기관직장팀 정비, 한국전력 럭비 등 연고팀 확대, 전략종목 운영과 팀 장단을 통한 불참 종목 해소 등 경기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정진배 전남선수단 총감독은 "목표인 종합12위를 반드시 달성하여 전남체육이 매년 향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이번 대회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정 총감독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전남선수단은 그동안 쏟아부었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해야만 된다'는 각오로 반드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남체육의 위상과 200만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승전보를 올리도록 하겠다"며 "전국체전 기간 중 임원·선수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품위 유지와 스포츠맨십정신을 발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해, 목표 달성은 물론 타의모범이 되는 전남체육인 상을 심어주겠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 배드민턴 광주체고·전남기술고 금 사냥 광주은행 창단 첫 출전 동메달 획득

전남기술과학고와 광주체고가 전국체전 남·여 고등부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확보, 광주·선수단의 첫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전남기술과학고 배드민턴팀은 11일 익산시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사전 경기로 열린 남자고등부 배드민턴 단체전 준결승에서 서울체고를 3-2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앞서 전남기술과학고는 예선에서 경남 선발을 3-1로 꺾는데 이어 경북 선발을 3-0로 물리쳤다. 전남기술과학고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사대부고와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여자고등부 단체전에 출전한 광주체고도 준결승에서 전북 대표로 출전한 전주성심여고를 3-1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했다. 광주체고는 예선에서 대전 대표로 출전한 대성여고를 3-0로 꺾는데 이어 경북 선발을 3-2로 이겼다. 광주체고는 12일 오전 10시 울산 대표인 범서고와 결승전을 갖는다.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 광주은행은 준결승에서 경기선발을 3-0로 물리쳤다. 전남기술과학고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사대부고와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황애란 기자



여자 양궁 리커브 오픈에 출전한 조장문이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 광주FC, 성남 철벽 수비 뚫고 PO진출 불씨

내일 탄천종합구장서 대결  
최근 3경기 6골 화력 입증



프로축구 광주FC가 포기하지 않는 투혼으로 성남 원정길에 나선다. 광주가 난적 성남을 잡고 기적의 불씨를 계속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는 오는 13일 오후 2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와 KEB 하나은행 K리그2 2018 32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전적은 1승 1무 1패로 팽팽하다. 성남은 최근 5경기 동안 1승 3무 1패로 주춤했고, 최하위 서울이랜드와 31라운드 홈 경기에서 1-2로 탈미를 잡았다. 선두 경쟁 부담이 있는 만큼 광주가 이를 잘 파고 들어야 한다. 현재 광주의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은 불리하다. 4위 부산아이파크와 승점은 8점 차다. 남은 5경기 동안 전승은 필수이며, 부산이 연패로 부진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남은 경기에 임해야 기적이 찾아온다. /황애란 기자

또, 올 시즌 내내 성원해준 광주팬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이번 성남전은 중요하다.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살리는 건 물론 앞으로 홈 2연전(수원FC, FC안양)에서도 상승세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위기는 좋은 편이다. 최근 2경기 연속 무패에 부진전 무승부에도 막판 극적 골과 경기력에서 압도했기 때문이다. 박진섭 감독은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며, 선수단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공격력은 합격점을 받았다. 3경기 동안 6골로 준수하다. 또한, 에이스 나상호는 2경기에서 3골로 득점 단독 선두와 함께 득점력을 회복했다. 지난 7월 성남과 홈 경기에서 득점을 했기에 자신감도 있다. 미드필드와 수비도 좋아지고 있다. 여름이 공수 연결 고리를 잘 해내고 있으며, 불안했던 수비도 안정세를 찾았다. 한 방 있는 성남에 대응할 힘이 생긴 건 긍정적이다. 성남은 올 시즌 내내 꾸준한 경기력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특히 운영선과 임재민 중앙 수비 조합은 K리그2에서 최고로 손꼽힐 만큼 탄탄하다. 광주는 두 선수의 수비벽을 뚫어야 승리할 수 있다. /황애란 기자



광주FC 나상호(왼쪽)가 골키퍼를 제치고 골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장애인AG 사격 이지석 2관왕 광주선수단, 양궁서 은 2·동 2 추가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지석(45·광주시청)이 사격 혼성개인 R4(10m, 공기소총 입사)에서 아시안게임 신기록(251.4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지석은 지난 9일 혼성개인 R9(50m, 화약소총 복사) 금메달(대회신기록, 244.8점)에 이어 사격 대표팀에서 처음으로 2관왕에 올랐다. 12일 혼성개인 R5(10m, 공기소총 복사)에서 대회 3관왕에 도전한다. 지난 10일 여자 양궁 컴파운드 오픈 결승에 진출한 정진영(51·광주시청)은 6점차이로 중국에게 패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양궁 리커브 오픈 3·4위전에서 조장문(52·광주시청)은 몽골선수에게 6대2로 승리하며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1일 열린 양궁 W1 혼성에 출전한 김옥금(58·광주시청)은 은메달을, 컴파운드 혼성 3·4위전에 출전한 정진영(51·광주시청)과 시각 불링 3인조 오택근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광주선수단은 금5, 은4, 동4를 획득했다. /황애란 기자

## 최용수, 2년만에 FC서울 사령탑 복귀 20일 제주전부터 지휘...강등 위기 서울 구할 중책

'독수리' 최용수 감독(45)이 위기의 FC서울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다. 프로축구 FC서울은 최 감독을 제12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다. 서울은 지난 4월 황선홍 전 감독이 자진 사퇴한 후 이을용 감독대행 체제로 팀을 운영해왔다. 최 감독은 1994년 FC서울의 전신인 LG 치타스에서 데뷔한 이후 일본 무대를 거쳐 2006년 서울에서 은퇴했다. 데뷔 첫해 신인상을 거머쥐었고, 2000년 서울이 우승한 해에 최우수선수(MVP)에 오르기도 했다. 선수 은퇴 후 서울에서 코치로 일하다가 2011년 황보관 전 감독의 사임으로 감독대행 자리에 오른 후 이듬해 제10대 감독으로 선임돼 2016년까지 지휘했다. 감독 재임 기간 서울을 매년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진출시켰고, 2013년엔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이끌어 AFC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5에는 FA컵 우승도 지휘했다. 2016년 5월 서울에서 K리그 감독 최연소 최단기간 100승 달성 기록도 세웠다. 최 감독은 그러나 100승 달성 한 달



최용수 서울FC 감독

후에 황선홍 전 감독에게 서울 사령탑을 물려주고 돌연 중국행을 택했다. 중국 슈퍼리그 장쑤 쑤닝에 거액의 연봉을 받고 합류했으나 성적 부진 속에서 1년 만에 사실상 해설위원으로 변신해 호평을 받기도 했다. 국내로 복귀한 후 국가대표팀이나 일본 구단 등의 차기 감독으로 물망에 올랐지만 최 감독의 행선지는 결국 '진정' 서울이 됐다. 최 감독은 오는 20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33라운드 경기부터 팀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시즌 극심한 부진 속에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하위 스플릿에 추락한 서울을 '강등 위기'에서 구해내야 하는 중책이 최 감독에게 주어졌다. /연합뉴스

## 벤투호, 우루과이 무승 탈출 '7전8기' 황의조-석현준 원톱 스트라이커 경쟁 '불거리'

'7전8기의 정신'이다. 7차례나 한국 축구의 '통곡의 벽'이 됐던 우루과이 격파를 향한 태극전사들의 뜨거운 도전이 앞장선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위의 강호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펼친다. 우루과이는 역대 FIFA 월드컵에서 2차례(1930년·1950년) 우승과 함께 4위(1954년·1970년·2010년)도 3차례나 차지한 전통의 강호다. 올해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우승팀' 프랑스에 밀려 8강에 머물렀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남미를 대표하는 축구 강국이다. 우루과이는 한국과 악연이 깊다. 한

국은 지금까지 우루과이와 7차례 만나 1무 6패로 열세다. 1982년 인도 네루컵에서 2-2로 비긴 이후 내리 6연패 했다. 한국 축구가 역대 원정 월드컵 최초로 16강에 진출했던 2010년 남아공 대회 당시 태극전사들의 8강 진출을 가로막았던 것도 우루과이였다. 우루과이는 FIFA 랭킹 55위인 한국이 뛰어넘기에는 쉽지 않은 상대다. 하지만 태극전사들은 벤투 감독 취임 이후 두 번째 평가전이었던 지난해 칠레전(FIFA 랭킹 12위)에서 0-0으로 비길 만큼 조직력을 쌓고 있어 우루과이와 대결에서도 무너지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우루과이전 승리가 더 간절한 선수는 기성용과 손흥민이다. 기성용은 '벤투



호 2기' 25명 가운데 우루과이와 가장 많이 대결, 가장 많은 패배를 경험했다. 손흥민은 2007년 3월 우루과이 평가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4년 9월 평가전에서 3패를 경험했다. 2014년 9월 평가전에는 손흥민과 기성용을 비롯해 김영권(광주), 이을

(전북), 남태희(알두하일)도 뛰면서 패배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우루과이를 상대로 4년 만에 '리벤지 매치'가 성사된 만큼 손흥민과 기성용의 승리 의지는 남다른 수밖에 없다. 특히 대표팀은 은퇴를 조심스럽게 고민하는 기성용은 현역 선수로서 마지막 우루과이와 대결이 될 수도 있다. 기성용은 "우루과이는 선수 개인 기량 뿐만 아니라 팀 수준도 한 수 위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밀린다"며 "상대가 강하더라도 우리는 평가전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볼 것이다. 아시안컵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결과에 매달리기보다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하겠다.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흥민 역시 "선수들의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 팬들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